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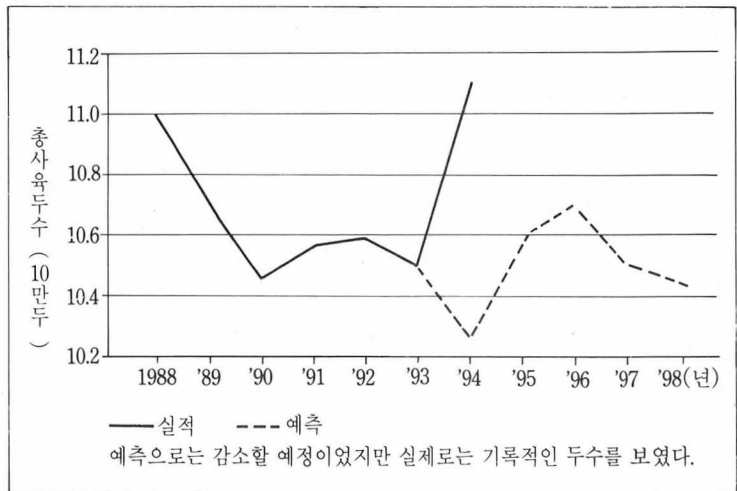
캐나다 양돈규모 계속 확대 전망

캐나다 정부의 농업경제학자들은 1993년 4월 양돈업의 향후 5년간의 생산을 예측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결성했다. 그 결과 양돈업은 성장단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안정기에 들어서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그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시점에서의 총사육두수는 1,050만 두로 1993년과 비슷

한 두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 후의 실제상황은 AAFC(캐나다 농업식품성)의 예측에 재검토를 요하는 것이었다(그림 1). 사육두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1994년에는 계속 1,100만 두 이상을 유지했다. 그 결과 1993년에 비해 총 사육두수는 7%나 증가하여 1989년 이후 최고두수에 도달하리라는 전망이다. 나라마다 조사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캐나다 시장

김 현 병 역
(본회 아산지부장)



〈그림 1〉 캐나다의 총 돼지 사육두수 추이

의 반응도 총 사육두수의 증가에 비해 늦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양돈업이 성장 단계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캐나다의 전문적 분석가에 의하면, 최근의 사료가격 저하와 돼지고기 가격의 기대 이상의 고가에 생산자들이 낙관하고 있어 총 사육두수가 증가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소리도 있다.

● 캐나다 양돈업의 확대 가능성

캐나다는 곡물이 풍부하여 소맥이 연간 3,000만톤, 기타 사료용 곡물이 2,500만톤 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작황이 풍작이어서 서부의 양돈장 집중지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의 사료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입수 가능한 상황에 있다. 한편 북아메리카의 돼지 가격은 달리 하락의 영향을 걱정할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확대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캐나다 모돈의 총 사육두수는 현재보다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캐나다 양돈협의회(돈육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의 단체에

서 반수가 양돈가)의 마틴 펠레티아씨는「우리 회원들 중 몇몇도 앞으로 10년간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한다.

돼지고기 생산의 확대 정도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생산증대에 관계하는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 투기적인 돼지두수 증가에 대한 예측,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놓치고 지나쳐 버리는 요소는 상당히 많다.

동시에 캐나다의 양돈업은 규모가 비약적으로 전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수한 유전적 자원, 경제적인 사료곡물 공급 메이커, 시장경로를 통해 강력한 인프라(사회자본)가 정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트협정에 의해 서반구로의 돼지고기수출도 보다 자유로워져 캐나다 양돈 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펠레티아 씨의 발언은 공식적인 캐나다 양돈협의회의 의견은 아니며 업계 내부의 일부 논의에 의한 바가 많다.

● 캐나다 양돈업계에서의 변화모색

캐나다 양돈업계는 현재 급

66

동시에 캐나다의 양돈업은 규모가 비약적으로 전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수한 유전적 자원, 경제적인 사료곡물 공급 메이커, 시장경로를 통해 강력한 인프라(사회자본)가 정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트협정에 의해 서반구로의 돼지고기수출도 보다 자유로워져 캐나다 양돈 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99

속도로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대초원 지대에서는 그 지역 양돈가와 타 지역의 양돈가가 손을 잡고 수백 두의 모돈을 소유하고 양돈장을 공동경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늘고 있다. 또한 중앙의 번식농장이 비육농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유자돈을 공급하는 방식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역시 보통의 일관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사료 메이커들이 자본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종돈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몇몇 국제적 종돈 공급회사가 진출을 꾀하고 있다. 게다가 동부지역에서는 대규모 벤처기업이 자돈의 생산에 착수해 이를 미국 중서부에 있는 비육농장에 수송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수출용 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양돈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캐나다와 국제적 돼지고기 생산

그러나 모돈의 두수가 2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캐나다 농업성 농정 분석부의 신

팬 씨는 이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캐나다와 국제적인 돼지고기 시장간에 구조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캐나다 농업성의 중기적 예측에서는 앞으로 9년간 연율 -1%~+2%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사료가격이 저가로 움직이고 있고, 수요는 포화상태에 있는 1인당 식육소비량에 영향받은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 각국의 1인당 식육 소비량은 최근 수년간 거의 안정되어 있다. 또한 그밖의 식육(특히 닭고기)에서의 경쟁압력도 여전히 강하다. 인구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돼지고기 생산이 급격히 신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 선진국에서의 인구 증가는 연율 1~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가 단독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캐나다국내 양돈업의 발전은 대규모 북아메리카 대륙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실 미국은 캐나다의 약 6배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현저한 생산의 성장을 보여주는 어떠한 경제적 지표도 캐나다와 동시에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

의 생산량이 2배가 되리라는 예측은 미국, 기타 세계 각국의 돼지고기시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의 돼지고기 생산은 중국 등의 거대한 아시아 시장의 소비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입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수입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수없이 많으며 캐나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양돈협회의회의 펠레티아 씨에 의하면, 이들 반론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국제적 돼지고기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만한 환경적 요인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는 양돈이 성장하고 환경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경지면적이 확보되어 있다. 다른 돼지고기수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대만처럼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들 문제는 생산 확대를 제한하고 생산량 감소도 초래하게 마련이다. 캐나다의 환경적 우위성은 국제적 돼지고기시장을 점유하는 유력한 무리가 될 것이다.